

# 아산 조방원 독창적 회화세계 만난다

전통 수묵회화 계승 '이상적 세계' 화폭에 담아  
광주시립미술관, 8월15일까지 '아산 조방원' 전  
회화 70점·간찰·서화류 등 수집컬렉션 함께 전시

전통 수묵회화를 계승해 수묵의 독창적인 회화세계를 구축했던 아산 조방원(1926~2014)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오는 8월 15일까지 미술관 본관 1, 2전시실에서 '아산 조방원-나그네를 기다리며 그 어느 산속의 집으로'전을 개최한다. 아산의 작품세계와 더불어 그가 즐겼던 불교의 의미, 작가의 동시대와 현대의 수묵화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에는 광주시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부국문화재단, 아산미술문화재단, 대동갤러리 등에서 소장중인 아산의 회화 70여점을 비롯해 장암 이상만 서화와

서화류 등 아산이 수집했던 컬렉션 30여점 등 모두 100여점이 선보인다. 한국의 격변기 속 전통의 계승과 변화를 겪었지만 지고지순하게 수묵화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이룩한 한국 근현대미술의 대표적인 화가아산의 작품을 감상할 기회다. 아산은 산수풍경 등을 즐겼던 수묵으로 그려 '묵산수 화가'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는 농촌의 일하는 사람들의 풍경을 한국 특유의 이상적 아름다운 풍경으로 보고 이를 즐겨 그렸다. 마음속 깊이 가장 가고 싶은 공간, 무엇 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고향과 같은 편안한 공간, 마음 속 모든 산수를 함축할 수 있는 이상 세계를 화폭에 담았다.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한국

근현대 유학과 미술인들과 달리 그는 전남 목포에서 그림을 배웠고, 가장 두드러지게 활동할 시기에도 광주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광주전남 지역 안에서 호흡하며 공부와 수련으로 자기 세계를 구축했던 화가였다. 남도의 자연에서 청아함과 함께 부드럽고 따뜻한 정경과 동시에 강렬한 에너지와 생명력을 보였고, 이를 수묵 그림 특유의 조형적 특징을 살려 독자적이고 개성적인 작품 세계로 자신의 회화세계에 펼쳤다. 한편, 선생은 광주를 중심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활동하면서 문화예술과 관련한 여러 일들을 도모했다. 그는 평소 국악인들의 쇠락을 아쉬워하며 남도국악원 설립(1968년)에 힘썼고, 서화류와 간찰을 수집했다. 자신이 수집한 서화류와 간찰들, 성리대전 목판각 등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자신의 개인 부지와 함께 전남도에 기증해 옥파미술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후에도 그는 생생한 역사와 선인들의 생각이 담긴 간찰들의 소신을 만나기위하며 이를 한곳에 모으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귀동

이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데 힘썼다. 아산은 한국의 사라져가는 전통 예술의 계승과 발전에 누구보다도 공감하며 이를 잇기 위해 앞장섰으며 이를 평생 자신의 일로 여기며 시간과 열의를 부여했다. 이번 전시에는 그가 전통 유목의 계승을 위해 수집했던 선현의 간찰과 서화류도 함께 볼 수 있다. 전시 개막식은 6월 2일 오후 4시. /이연수 기자



한산



도강

## 사진작가 이정록 'Tree of Life' 영국 필립스 경매서 36배 낙찰

이정록 사진작가(46)가 세계 3대 경매회사인 영국 필립스경매에서 3.6배의 높은 가격에 작품이 낙찰됐다. 23일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제9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수상 작가인 이정록 작가의 작품 'Tree of Life #1'이 지난 18일 열린 영국 필립스옥션에서 한국가격의 3배 이상 가인 2만2,500파운드(한화 약 3,290만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영국 필립스옥션은 소더비, 크리스티와 더불어 세계 3대 옥션의 하나다. 이번에 진행된 경매는 런던 필립스에서 열리는 사진 경매 프로그램 중 하나로 유니크 하거나 솔드아웃된 작품들을 모아 진행되는 'Ultimate Contemporary'라는 특별 세션이다. 한국 젊은 작가의 작품이 경매 시작자의 3배 이상으로 낙찰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Tree of Lif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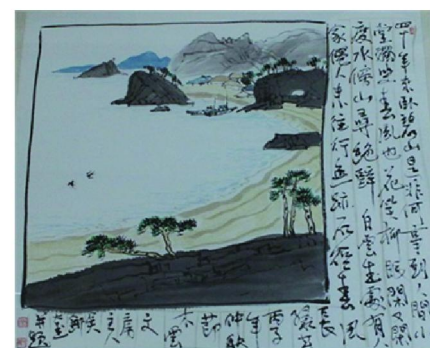
'Ultimate Contemporary' 특별 세션은 2014년 11월 처음 시작됐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가 Bruce Weber부터 떠오르는 신진작가인 Tyrone Lebon까지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경매에는 사진사에서 중요한 작가인 헨리 카르티에 브레송, 로버트 프

랭크 등 1950~60년대 작품들이 총 93점 출품되어 81점이 최종 낙찰됐다. 이정록 작가는 광주 출신으로 광주대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사진디자인을, 로체스터 공대 영상예술대학원에서 순수사진을 전공했다. /이연수 기자

##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전면증보관 기금 마련전

내일부터 은암미술관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5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은암미술관에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전면증보관 출간 비용을 마련하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되는 작품들은 회원들이 기증한 소장품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기증한 작품 등 약 50여 점이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1985년 5월 1일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 황석영 기록으로 풀빛출판사에서 초판이 발행되어 당국의 감시 하에서도 지하 베스트셀러로 워런 바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등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의 전국화, 세계화에 크게 기여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전면증보관은 3년여의 출간 준비기간을 갖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은폐됐던 군 수사자



목운 오건규 작 '四十年來'

료, 국회 청문자료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5·18의 왜곡 및 폄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초판 출간 이후 32년 만에 출간되는 이번 증보관은 5·18의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의의적인 선전·선동에 대한 일대 반격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픈식은 25일 오후 6시. 문의 062-231-5299. /이연수 기자

## 문화누리카드로 김치축제 즐기자

광주 852곳 가맹점서 사용 가능

'제24회 광주세계김치축제'가 2017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지정됐다. 오는 26일부터 광주김치타운에서 10일간 열리는 제24회 광주세계김치축제에서는 ▲우리집 새김치 담기 체험(배추김치·열무알갱이 김치 버무림 체험 5,000원, 토마토 오이송송이 김치버무림 체험 3,000원) ▲김치음용요리체험(김치음용요리체험 목돈지 감람도시락·목돈지 샐러드 브리또 3,000원) ▲특별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전동놀이체험(무료) ▲김치 칼라잡플(클레이) 어린이 경연대회(무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6만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를 5만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등 문화생활 전용 복지카드로 광주 총 852곳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한편, 문화누리카드 발급가는 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전용가맹점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이보람 기자

**주방용품 전문점**

# 현금 최고가 매입!!

## 최저가로 판매하는 매장!

★★ 식당용 비품 일체 사고 팝니다. ★★

★★ 업소용 그릇 전문 할인 판매 ★★

식당용 비품일체, 에어컨, 냉장고, 반찬냉장고, 세척기, 싱크대 등 철저한 A/S, 모든 제품 6개월 무상 A/S

### 백두산알뜰중고매장

본점 : 524-3377 북구점 : 521-6677  
직통 : 010-9430-1698

# 솔밭가든

## 단체모임 환영

1층 대형홀 100석 / 2층 룸 완비

왕갈비탕	11,000원	예 약 제	솔밭정식	인당 20,000원
모듬쌈밥	10,000원		인당 35,000원	
담양식돼지갈비	13,000원		해신탕	120,000원

늘 가족 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61) 372-3391

대표자 정선철    주소 : 화순군 화순읍 계소리 695-1 (화순역 ~ 무등산CC 사이)